

## 예술로서 관계 맺기



성호숙, 진혼, 2012

수업개요 : 인간의 정신활동인 예술이 동시대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지 성호숙 작가의 예술로서 관계 맺기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대상연령 : 13 - 15세, 15 - 18세

키 워 드 : 예술행위, 사회문제, 치유와 희망, 협업, 소통, 참여미술

학습주제 : 예술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배 경 : 근대 시민사회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었던 예술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은 이후 산업 혁명과 과학 기술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사회의 일상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풍자하기도 하였으며 부조리한 사회 현실과 정치적 위선자를 비판하고 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알려 주는 등 일련의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성호숙 작가는 1980년대부터 노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현장 미술가이다. 작가는 사회문제에 예술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노동자가 예술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 오면서 참여미술을 통해 사회적인 돌봄과 소통, 예술 행위와 희망, 치유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했다.

이번 성호숙 작가의 비엔날레 전시는 예술가와 노동자, 시민들의 협업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예술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 혹은 예술로서 관계 맺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다.

수업 과정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제를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공통점 추측해 보기</li> <li>-케테 콜비츠의 '전쟁은 다시 있을 수 없다', 페르난도 보테로의 '거리', 장샤오강의 '대가족No1'을 감상한다.</li> <li>-교사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제공하고 학생들 스스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li>○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사회문제를 표현한 작가를 알고 있으면 소개해 본다.</li> </ul>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효숙 작가의 '진혼' 과 관계된 자료를 보고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생각의 정원 <i>Garden of Thinking</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li> <li>-신발과 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li> <li>-작가의 표현 방법과 특징은 무엇입니까?</li> <li>-어느 시대, 누구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입니까?</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효숙 작가의 최근 작업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고 예술가, 예술, 참여자간의 관계 맺기에 관해 의견 교환하기</li> <li>-혹시 작가의 작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험을 이야기 해 봅시다.</li> <li>-예술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li> <li>-성효숙 작가는 왜 참여자들과 함께 예술행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일까요?</li> <li>-참여자들은 예술가, 또는 예술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나요?</li> <li>-자신에게 기회가 온다면 예술행위에 참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li> <li>○ 소그룹별로 예술가로서 참여미술 기획해 보기</li> <li>-만약 여러분이 예술가로서 특정한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참여미술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도를 해 보고 싶은가요? 소그룹별로 논의하여 간략한 기획안을 작성해 보세요.</li> <li>-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나요?</li> <li>-어떤 예술행위로 참여자와 관계 맺기를 시도해 보고 싶은가요?</li> </ul>	<p><b>Tip</b> 성효숙 작가는 최근 콜트 콜텍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예술 작업 외에도 돌봄 여성들과의 참여미술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용산 참사 부상자를 위한 예술치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p>

	-기획한 내용은 실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술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그룹별 기획안 발표하기 ○ 성효숙 작가의 작업에 대한 가치 판단하기	
정리	○ 예술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 현장 활동 안내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성효숙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참여활동에 참가하기	

▶ 이렇게 해 보세요.

이번 비엔날레 성효숙 작가의 전시에는 설치작품 이외에도 관람객이 직접 엽서에 염원을 적어서 벽에 거는 참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술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전시장의 전시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성효숙 작가의 작품과 비슷한 성격의 작품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어려움이 있을 땐 에듀케이터와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작품 설명

• **전쟁은 다시 있을 수 없다' (석판화/94×70 cm/1924년)**

- 케테 콜비츠(1867~1945/러시아 → 독일)
- 참혹한 전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작품이다.

• **'거리' (캔버스에 유채/200×139 cm/2000년)**

- 페르난도 보테로(1932~/콜롬비아)
-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중의 모습을 통하여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과 경직된 사회상을 표현하였다.

• **대가족 No. 1(석판화/105×139.4 cm/2006년)**

- 장샤오강(1958~/중국)
- 격변기 중국의 가족에 대한 초상으로 가족 해체에 대한 사회 변화상을 석판화로 제작한 작품이다.